

보도 일시	2023. 3. 22.(수) 14:00 2023. 3. 23.(목) 조간	배포 일시	2023. 3. 22.(수)	
담당 부서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	책임자	반 장	박수연 (044-202-7507)
		담당자	사무관	박지영 (044-202-7625)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단호히 대처할 것

- 이정식 장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실근로시간 단축 및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 확립 의지 표명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10개 노조, 가나다순): ①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 ②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③부산관광공사 열린노조 ④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⑤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⑥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노조 ⑦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⑧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 ⑨LG전자사람중심 사무직노조 ⑩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 간담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를 제외하고 “9개 노조” 대표자 참석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 (붙임1)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 일시: '23. 3. 22. (수) 14:00~15:30 (90분)

□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 등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9명

□ 주요 내용

○ 노동개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장관님 인사말씀 이후, 의견 청취 및 논의 예정(***인사말씀까지 공개**)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오늘 엠지(MZ)세대를 대표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분들을 모시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지난주 근로시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늘은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해 우리 노동시장,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일하는 방식, 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공장법 시대의 70년 된 노동법제와 전투적인 노동운동,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유지되면서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하고 싶은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 한편, 미래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 여기 오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분들도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민 상식에 맞게 규범을 현대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 이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개선을 넘어
우리의 의식과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 저 역시 30년 이상 노동운동을 해 왔지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꿈꾸며
현장에서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계신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많은 의견들을 가감없이 나눠주시고,
개혁 과정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현행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규제 방식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점차 다양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기 어렵습니다.

- 이에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면,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제도개편과 관련해 현장에서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노동조합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소수 노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진솔하고 의미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 새 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여러분들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